

현대 패션에 표현된 욕망의 미적 가치

정 기 성

계명대학교 패션디자인과 부교수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현대 패션에 표현된 욕망의 미적 가치를 통합적으로 파악하는데 있다. 연구방법은 문헌연구로써 욕망의 개념과 의식의 체계를 인간의 존재론적 입장에서 살펴보고, 후기구조주의 시각을 바탕으로 몸·복식을 통해 표현되는 본능·권력·창조의 욕망을 나르시시즘·페티시즘·에스테티시즘에 대응시켜 고찰하였다. 사례연구로는 현대 패션에서 나르시시즘·페티시즘·에스테티시즘의 사례를 디자이너, 착용자와 관찰자의 입장에서 선별하고 다각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연구범위는 후기구조주의가 형성된 1960년대 말부터 현재까지로 하였고 사례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1990년대 이후 현대 패션을 대상으로 패션 전문서적과 패션전문정보사이트, 패션작품집 등에서 본 연구의 논지에 부합하는 자료를 선별하여 내용분석을 진행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나르시시즘이란 리비도(libido)라 칭하는 에로스(eros)의 에너지가 자기의 육체, 자아, 자기의 정신적 특징으로 집중되는 현상이다. 나르시시즘에는 거울전이의 자기에, 이상전이의 대상에, 자아의 원천성(源泉性) 회복을 이르는 퇴행적 나르시시즘이 있었다. 나르시시즘은 이상을 추구하는 본능의 욕망으로 자궁심을 통해 외부의 자극이나 변화에 대해 무관심·거부의 행동특성으로 나타나며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여 삶의 지속성과 항상성에 기여한다. 둘째, 페티시즘은 몸·복식을 대상으로 파악되는 특정한 성적 이미지에 대한 추구, 개인이나 집단의 성적본능에 대한 표현을 지칭하는 성적 페티시즘과 소비사회에서 주변사물에 대해 갖는 수집가적 태도로서 물적 페티시즘이 있었다. 페티시즘은 이상을 추구하는 권력의 욕망으로 복식아이템의 분화와 스타일의 다양화·고급화에 기여하고 패션의 변화에 지속성을 부여한다. 셋째, 에스테티시즘은 미적 이상을 추구하는 창조의 욕망으로 개인이나 집단에게 소속감을 부여함으로써 복식의 변화와 패션화를 주도하는 시대적 이상미와 디자이너, 혹은 착용자의 창의성과 미적 취향의 다양성으로 표출되며 패션과 문화의 사회적 지향성에 대하여 창조적 시각을 제공하는 절대적 이상미가 있다.

주제어: 욕망, 나르시시즘, 페티시즘, 에스테티시즘

I. 서론

1. 연구의 목적

현대 소비사회에서 몸·복식은 개인의 욕구와 욕망에 순응하는 변형 가능한 존재양식이다.¹⁾ 패션은 몸의 재현을 문화적 맥락 안에 가시화시키며 디자이너, 착용자와 관찰자의 공조 하에 이루어지는 내적 의지를 표현한다.²⁾ 현대 패션이 지속적인 투자와 소비의 장이 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디자이너, 착용자와 관찰자가 공조 하에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현대 패션이 인간의 욕망을 표출시키는 효과적인 매개체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미적 가치를 담아낼 수 있는 존재의 양식이기 때문이다.

현대 패션에서 욕망과 미의식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이민선, 김민자(2001)³⁾는 남성의 몸과 패션에 표현된 미적 이미지의 특성인 에로티시즘은 나르시시즘과 페티시즘으로 설명된다고 하였다. 최나리, 우주형(2006)⁴⁾은 현대 패션에서 신체 부위의 노출을 통하여 에로티시즘이 부각되고 있다고 하였다. 최유진(2009)⁵⁾은 현대 패션디자인에서 여성의 신체이미지가 파편화, 왜곡, 해체되고 있으며, 성적 페티시, 무의식, 욕망과 환상을 담는다고 하였다. 선행연구들은 구체적 현상을 통해 표현되는 미적 특성으로서 욕망과 미의식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패션의 변화를 인과적 관계에서 분석하고 종합적으로 이해하는데 한계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패션의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주요 변인을 욕망으로 규정하고 인간의 존재론적 특성을 바탕으로 인간의 가치체계와 의식을 연계시켜 고찰함으로써 현대 패션에 표현된 욕망의 미적 가치를 통합적으로 파악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패션의 변화를 단순히 미적 형식의 변화로 파악하는 것에서 벗어나 인간의 욕망, 가치체계와 의식이 반영된 문화메타포로 이해하고

현대 패션에 표현된 욕망의 미적 가치를 다각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또한 남성복과 여성복의 변화를 하나의 통일된 관점으로 파악해 보는 것에도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연구방법은 문헌연구와 사례연구를 병행하였다. 문헌연구로는 욕망의 개념과 의식의 체계를 인간의 존재론적 입장에서 살펴보았다. 또한 후기구조주의 시각을 바탕으로 몸·복식을 통해 표현되는 본능·권력·창조의 욕망을 나르시시즘·페티시즘·에스테티시즘에 대응시켜 살펴보았다. 1960년대 말부터 형성되어 70~80년대의 포스트모더니즘 이론과 공유되며 인간 행위와 그 산물에 대한 사고 유형과 인식에 대한 이론을 제시하는 후기구조주의는 현대 패션을 욕망의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시각을 제시할 것이다. 사례연구로는 현대 패션에 표현된 나르시시즘·페티시즘·에스테티시즘의 사례를 디자이너, 착용자와 관찰자의 입장을 중심으로 선별하고 다각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범위는 후기구조주의가 형성되고 패션이 산업으로 정착한 1960년대 말부터 현재까지로 하였고, 사례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1990년대 이후 현대 패션을 대상으로 패션전문서적과 패션전문정보사이트, 패션작품집 등에서 본 연구의 논지에 부합하는 자료들을 선별하여 내용분석을 진행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1. 욕망의 개념과 의식의 지배체계

욕망이란 국어사전적 의미로 “무엇을 하거나 가지고 싶어 간절히 바라고 원함. 또는 그 마음”이

<표 1> 욕망과 의식의 지배체계

욕구의 근원		욕망		인간의 의식		의식의 지배
존재의 결핍성	→	생물학적 (본능)	→	주관 중심적 의식 (자연충동의 추구)	→	이드 (id)
		사회학적 (권력)		제도적 의식 (객관적 질서의 추구)		에고 (ego)
		미학적 (창조)		상징적 의식 (초월적 가치의 추구)		초자아 (super-ego)

다.⁶⁾ 영영한 사전에서 desire는 “strong longing; strong sexual attraction; instance of this; earnest wish, 욕망; 성욕, 갈망이나, (sing) request, 요구, 요청, 혹은 thing that is wished for, 바라는 것”을 뜻한다.

플라톤(Platon)은 욕망을 인간이 자신의 제약을 넘어 자신을 보편자로 지향할 수 있게 하는 본성이라 하였고, 데카르트(René Descartes)는 욕망을 (동물)정기가 영혼으로 하여금 자기에게 알맞다고 생각한 것을 장차 갖고 싶게 만드는 것이라 하였다.⁸⁾ 스피노자(Baruch de Spinoza)는 욕망을 인간의 본질 그 자체이자 자기 보존의 능력이며 인간성에 대한 도덕적, 존재론적, 생물학적 기술들을 통해 고찰될 수 있다고 하였다.⁹⁾ 헤겔(G. W. F. Hegel)에 따르면 욕망은 이성 못지않게 현실적이며 이성 에 의해 가려진 진리의 진정한 이면(裏面)으로써 이성을 자신의 한 모서리로 하는 모든 존재의 자기보존의 궁극원리이다.¹⁰⁾

한편, 게엘렌(Arnold Gehlen)은 인간의 본질을 생물학적 결핍존재로 규정하였고 인간의 의식은 생존의지나 행위충동을 바탕으로 형성된다고 하였다. 의식의 원천이 되는 충동은 생물학적 동기에서 유래하는 자연적 충동과 문화적 충동으로 나눌 수 있으며 문화적 충동은 다시 제도적 가치에 의한 충동과 상징적 가치에 의한 충동으로 구분된다.¹¹⁾ 프로이트(Sigmund Freud)는 인간의 정신을 이드(id), 에고(ego)와 초자아(superego)로 구분하였다. 이드는 즉각적인 만족을 구하는 본능적 충동을 말한다. 에고는 외부적 현실세계와 관계를 갖

고 그 외부 세계와 이드사이를 조정한다. 초자아는 사회적 규범을 담고 있는 에고의 한 특수 부분으로 이드와도 관계를 갖게 되는데 그것은 이드가 에고를 초자아, 즉 엄격한 도덕률과 맞서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에고는 이드, 초자아와 외부 현실사이에 일어나는 서로 대립적인 요구들을 조화시켜야 한다.¹²⁾ 프로이트의 이론에 따라서 이드가 개인의 본능적 충동을 지배한다고 할 때, 에고는 개인의 충동이나 욕망을 사회적 관계 속에서 추구하게 하고, 초자아는 에고의 추구로 야기되는 사회적 문제를 조율하고 창조적으로 실현시킬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갖게 된다고 할 수 있다.

현대 패션을 욕망에 따라 변화하는 존재의 표현양식으로 파악할 때, 현대 패션은 인간의 존재론적 특성으로부터 기인하는 생물학적·사회학적·미학적 욕망을 담게 된다. 인간의 존재론적 입장에서 볼 때, 욕망과 의식의 지배체계는 <표 1>과 같다.

2. 후기구조주의 시각에서 몸·복식·욕망의 관계

1) 본능의 욕망

본능(instinct)은 개인에 따라 거의 변화가 없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거의 흔들리지 않으며, 어떤 목적에 부응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동물에게 있어서 고유한 유전적 행동구조를 말한다.¹³⁾ 프로이트는 본능을 정신과 육체사이의 경계선에 있는 개

념으로 파악하였다. 본능은 몸속으로 끊임없이 흐르는 자극의 근원이 심리적으로 표현된 것이다. 본능은 ‘순간적’인 충격을 주는 힘으로써가 아니라 늘 ‘지속적’인 충격을 주는 힘으로써 작용한다. 본능은 외부에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내부에서 작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피하는 일은 거의 불가능하다.¹⁴⁾

프로이트에 의하면 욕망은 최초의 경험형태인 충족체험에 의거한다. 충족체험은 욕구가 만들어진 긴장이 외부의 개입에 의해 진정되는 체험이다. 충족을 주는 대상의 이미지는 주체의 욕망구성에 있어서 선택적인 가치를 가지며 실제 대상이 없는 상태에서도 재(再)투여되어 충족대상을 추구하는데 항상 길잡이가 되는 것이다.¹⁵⁾ 충족체험에 뒤이어 욕구가 다시 생길 때, 최초의 충족상황을 재현하려는 심리적 움직임을 욕망이라고 부르는 것이다.¹⁶⁾

메를로 폰티(Merleau Ponty)는 일원론에 입각하여 몸 철학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추상적인 사고방식이 인간의 실존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인간을 삶으로부터 소외시키고 있다고 지적한 폰티는 인간의 ‘몸’, ‘지각’과 ‘세계’를 철학의 기초로 하였다. 폰티에게 몸은 객체가 아니라 객체와 관계를 맺게 하는 조건이자 매개으로써 살아가고 경험을 형성하는 것이다.¹⁷⁾ 지각의 주체로서 몸의 철학은 자신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일상생활 속에서 출발해야 한다. 폰티는 철학의 출발점으로 ‘지각의 원천성’과 ‘체험된 몸’을 강조하였고 지각을 육화된 몸의 작용이라고 하였다. 폰티에게 있어서 지각은 곧 표현이며 몸은 이러한 지각과 표현을 수행하는 장소이다.¹⁸⁾

후기구조주의 시각에서 폰티는 이성중심의 서구 근대화 과정에서 도외시되었던 몸을 철학의 중심으로 환원시킴으로써 지각과 표현의 창조적 활동을 욕망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게 한다. 이러한 시각은 몸을 통해 발견되고 추구되는 본능의

욕망에 대하여 몸·복식에서 남성과 여성의 생물학적 차이나 권력관계를 초월하여 고찰할 수 있게 한다. 본능의 욕망은 주체의 의지가 발동하는 시발점으로 생물학적 몸에 대한 심리학적 접근을 통해 몸·복식에서 욕망의 이론을 체계화하는 출발점을 제공할 수 있다.

몸·복식(패션)에서 본능의 욕망은 성의 관점에서 논의되어 왔다. 플뤼겔(Flügel)은 “인간의 원초적 본능 중 성적 본능이 가장 강하다.”는 프로이트의 이론을 근간으로 인간의 의복 착용동기를 상반된 양면성으로 설명하였다. 옷으로 수치스러운 몸을 가리며 정숙한 체하지만 오히려 감추어진 몸의 부위로 성적 매력과 관심을 끌며 에로티시즘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성인(成人)적 자아는 유아적 자아를 억제하고자 하지만 무의식적으로 성적인 속성이 강화된다는 것이다. 플뤼겔은 여체의 머리, 목, 유방, 허리, 엉덩이, 팔, 다리는 남성에게 있어서 성적 매력을 느끼게 하는 부위이며 이러한 신체부위를 남성에게 보이기 위하여 시대, 민족, 개인에 따라 옷으로 강조하거나 감춤으로써 패션이 변한다고 하였다.¹⁹⁾ 그러나 현대 남성들은 거울을 보며 적극적으로 자신을 꾸미고 다이어트로 식단을 관리하며 헬스클럽에서 시간을 보낸다. 이러한 행동은 이성에게 ‘보이기를 원하는’ 성적 욕구 이외에 인간의 자기도취적인 나르시시즘의 속성이 ‘보이기를 원하는’ 성적 욕구를 유발시키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성(性)에 대한 인간의 본능적 욕구는 심리학적으로 자기애(自己愛)적 외피에서 비롯되며 옷이나 장신구 등을 몸에 착용하는 환유(換喻)적 의미로 치환된다. 관음증이나 노출증에 대한 심리현상은 라캉의 거울이론을 통해 설명되는데 팍토(Pacteau)는 수동적 노출증과 능동적 관음증이 남녀 모두에게 공존하고 있음을 주장하였다.²⁰⁾

2) 권력의 욕망

권력(power)은 “남을 지배하고 복종시키는 힘”이다.²¹⁾ 정치학 사전에서 권력은 “권력자가 강제력을 통하여 예측된 자의 의지에 반하여 자기의지를 관철시키는 힘”이다.²²⁾ 권력이란 어떤 개인 또는 집단이 타자의 행동에 대해 갖는 영향력을 가리킨다.²³⁾ 부르디외(Pierre Bourdieu)는 타인에 대한 힘과 영향력의 근원을 자본이라고 하였다.²⁴⁾ 사회 속에는 여러 형태의 자본이 존재하고 있다. 사회는 지배적인 자본이 무엇인가에 따라 다양하고 자율적인 경쟁공간으로 구성되는데 이러한 지배와 피지배의 공간을 장(champ)이라고 한다. 시장 권력은 새로운 시장의 창출을 통해 확대 재생산된다.²⁵⁾ 푸코(Michel Foucault)는 권력을 개인이나 그룹이 소유하고 있는 실체가 아니라 사회적 관계의 ‘효과’로 보았다.²⁶⁾

권력은 일상생활에 적용되어 개인을 범주화하고 개별성에 의해 구별한다. 사회적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결핍감정의 충족은 다양한 양태로 표출되지만 본질적으로는 권력의 추구로 귀결된다. 권력의 욕망은 항상 생기는 것이 아니라 본능의 바탕위에 잠재하여 있다가 외부의 대상이나 자극에 대한 충족체험을 원할 때 발생하지만 충족의 실제 대상이 없이도 작용할 수 있다. 라캉은 “부러움이란 그 본질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면서, 즉 자신에게는 충족의 대상이 아닌 것을 타인이 소유할 때 느낀다.”²⁷⁾라고 하였다. 타인이 소유한 것은 절대로 관찰자가 원하는 것과는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 대상을 정확히 모르는 인간은 자기가 원하는 것의 대체물만을 소유하게 된다. 욕망은 주체로서의 인간을 형성함과 동시에 타자의 끝없는 관찰자로서 살게 한다. 욕망은 주체의 정체성을 일순간에 무너트리는 미지의 영역이다. 욕망들은 깨끗이 사라져 버리지 않고 억압되어서 무의식으로 남아 의식에 영향을 준다.²⁸⁾

후기구조주의 시각에서 지배계급의 전략이며

욕망의 이미지를 지니고 있는 권력은 사회에 미시적으로 편재하며 지식과 연계하여 신체를 통제하고 인간의 행위와 신체, 마음과 의도까지도 만들어낸다.²⁹⁾ 이러한 시각은 권력이 지향하는 새로운 문화가치의 창출을 위해 문화를 새겨 넣는 매체로써 몸이 기능할 수 있음을 말한다. 즉, 역사가 새로운 문화를 창출하기 위해 몸을 해체시킨다는 것이다.³⁰⁾ 권력의 욕망에서 몸을 논쟁의 쟁점으로 위치시키는 것은 몸이 사회의 주된 강자와 약자, 지배와 피지배 등과 같은 사회문화적 구조와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현대 사회에서 몸·복식은 개인에게 주어지는 사회적 차별을 정당화하는 가장 강력한 기제이다. 인간은 스스로 몸을 권력에 복종시키는 동시에 욕구의 통제와 발산에 대한 선택과 제어를 통해 몸을 자신의 삶에 가장 합리적으로 투자하고 보존하려 한다. 푸코는 권력이 행사하는 장소 중의 하나가 바로 몸이라고 주장했고 몸의 행동 범위를 규제하는 기제들을 통해서 권력에 순응하는 몸이 만들어진다고 하였다.³¹⁾ 푸코가 “유순한 몸”을 통해 본능의 욕망에 대한 권력의 영향력을 설명하고 있다면 몸을 심리학적 측면에서 다루고 있는 들뢰즈(Gilles Deleuze)와 가타리(Felix Guattari)에게 몸은 기계의 범주에 속한다. 그들은 세계, 사회, 인간, 예술, 몸 등 모든 것을 기계라고 하였다. 기계의 범주에 속하는 몸은 사회적 생산과정에서 절단과 접합이 끊임없는 흐르는 ‘기관 없는 몸(body-without organs)’과 중첩된다.³²⁾ 기관 없는 몸은 사회적인 결합, 교육, 기호화, 주체화된 상황에서 분리되어 탈 결합되고 해체되며 탈 영도화 되어 새로운 방식으로 재구성된 몸이다.³³⁾ 들뢰즈는 몸을 욕망이 활동하는 장으로 인식하고 욕망을 겹여로 인해 파생되는 것이 아닌 생성의 에너지로 보았다. 들뢰즈가 욕망을 ‘기계’라고 지칭하는 것은 신체의 모든 기관이 기계적으로 작동하면서도 통일된 하나의 체계에 예측되지 않고 끊임없이 움

직이며 절단되었다가도 다시 접속, 연결되고 분열하면서 생산하는 특징이 있기 때문이다. 들뢰즈는 새로운 욕망을 한없이 조장하는 것을 자본주의 사회의 기본 특징으로 보았다.³⁴⁾ 끊임없이 움직이는 변화 속에서 생산을 지속하는 욕망을 ‘기계’로 지칭한 들뢰즈의 시각에서 볼 때, 탈 결합되고 해체되어 새롭게 구성되는 몸은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권력을 지속·강화시키고자 하는 창조적 본능으로 권력의 욕망을 추구한다고 할 수 있다.

패션이란 모방과 창조의 사이클이다. 베블런(Thorstein B. Veblen)은 패션을 계급 차별화의 도구로 인식하였고, 짐멜(Simmel)은 계급 상징의 동조성과 개인 차별화의 도구로서 패션을 진술하였다. 짐멜은 유동성이 있는 사회에서 엘리트층에 대한 하류층의 모방심리가 확대된다고 하였다. 짐멜은 현대 자본주의 사회를 분석하면서 패션은 개인을 차별화시키면서 경쟁과 상호의식을 강화시키지만 역설적으로 공유됨 즐거움에 동조하고자 하는 욕망을 고취시킨다고 하였다.³⁵⁾ 패션의 역학은 인간태도의 양면성으로 인한 개인화와 동조화, 차이와 연합, 자유롭고자 하는 욕망과 의존(동일시)하고자하는 욕망을 모두 포함한다. 짐멜은 패션화된 신체를 자아확대의 의미로 이해하였고 일상생활에 있어 권력의 일부로 인식하였다.

3) 창조의 욕망

창조란 국어사전적 의미로 “어떤 목적으로 문화적·물질적 가치를 이룩함, 처음 만듦”을 이른다.³⁶⁾ 영영한 사전에서 creation은 “the act of creating 창조; all created things 창조물; production of the human intelligence, esp one in which imagination has a part 인간의 지혜가 만들어 낸 것”³⁷⁾을 지칭한다. 미학적 관점에서 욕망에 대응하는 창조의 개념은 문화적 가치의 간접적 성취를 지향하는 초월적 가치체계로써 상징적 의식을 대변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창조의 개념

은 인간이 처음으로 만든 것 중에서 본능이나 권력의 욕망을 중점적으로 지지하는 것을 제외한 것으로 제한한다.

부르디외(Bourdieu)는 몸을 상징가치의 담지체, 육체 자본(physical capital)의 한 형태로 보았고 후기 근대사회에서 몸이 상품화되고 있다고 하였다. 몸의 상품화란 몸이 노동력의 매매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과 몸이 더 포괄적 형태의 자본이 되는 방법들을 가리킨다. 육체 자본이란 육체가 권력과 지위, 남과 구별되는 상징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육체 자본을 생산한다는 것은 사회분야에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몸을 개발한다는 것이다. 부르디외가 제시한 ‘육체 자본’이나 ‘상징 가치’의 개념은 권력의 개념으로 쉽게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부르디외가 제시한 몸은 다양한 사회적 힘과 연관되어 발달하는 미완의 실체이다.³⁸⁾ ‘육체’나 ‘상징 가치’가 권력구조를 옹호하는 ‘자본’이 아닌 결핍존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초월적 가치를 지향할 때, 몸·복식은 ‘창조의 욕망’을 담게 된다.

보드리야르(Jean Baudrillard)는 현대 사회를 지배 이데올로기로써 소비사회로 규정하였고 몸을 현대 소비사회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비의 대상으로 보았다. 소비사회에서 몸은 차별적, 사회적 의미를 담아내는 기호이며 경제적 의미에서 투자되고 심리적 의미에서 물신숭배 되고 있다. 소비사회의 특징은 몸의 교환가치를 포함한 환상을 물신화하는 것이다. 소비사회에서 인간의 몸은 하나의 자산으로 관리·정비되고 사회적 지위를 표시하는 여러 기호형식 중의 하나로써 조작되며 전통적이고 상징적인 사물에서 교환 가능한 기호로써 사물로 이해되고 있다.³⁹⁾ 하지만 몸은 소비의 대상으로서 상품화되는 과정에서 새롭게 창조되고 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의도적으로 투자되고 동시에 물신 숭배되고 있는 몸은 그 주체의 의식과 의지에 따라서 새로운 창조의 장이 되고 있는 것이다.

<표 2> 후기구조주의 시각에서 본 몸·복식과 욕망의 관계

몸·복식의 개념				욕망
메를로 퐁티	→	현상적 장 지각과 행동의 주체		본능의 욕망 · 나르시시즘
푸코	→	유순한 몸 권력행사의 장		권력의 욕망 · 페티시즘
들레즈 · 가타리	→	기관 없는 몸 자기파괴를 통한 생성		창조의 욕망 · 에스테티시즘
보드리야르	→	소비의 대상 환상의 물신화		
부르디외	→	상징가치의 담지체 욕체자본, 몸의 상품화		

생산이 소비의 논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후기자본주의 사회에서 몸·복식은 권력의 욕망을 강화시키는 수단으로 작용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존재로서 비상을 꿈꾸는 창조의 욕망에 의해 변화되기도 한다. 몸·복식에 대하여 관찰자는 스스로의 경험을 토대로 지각하고 지금 보이는 대상과 과거 속에서 지각된 적이 있는 몸·복식을 함께 지각한다. 인간의 경험에 의한 지각은 역사 속에서 대상을 경험하며 또한 새로운 상징적 의미를 찾고자 하는 창조의 노력을 지속한다.

프로이트는 욕동의 심리적 표현이 무의식적이고 생래적(生來)적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후천적으로 억압된 것으로부터의 해석을 요구한다고 하였다.⁴⁰⁾ 창조의 욕망이 다루고 있는 대상은 사회적으로 재구성되어 새로운 사회적 성을 표현하는 몸, 새로운 사회적 상징 가치를 표현하는 몸·복식이다. 창조의 욕망이 대상으로 하는 몸·복식은 몸주체의 인식적 변인이 독립된 주체로서 초월적 가치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권력의 욕망이 다루는 몸·복식과 차별화된다. 창조의 욕망에서 복식은 인간의 몸을 세상과 연결시키는 기호이다. 복식은 모든 사회와 문화, 인간의 사고, 가치, 이념, 태도, 정서를 담아내는 시물레이션이며 전달내용이다. 전통적으로 복식은 몸을 담고 있는 제 2의 피부이며, 몸에 대한 재현(representation)으로서 몸의 형태와

기능을 따르는 것으로 간주되어 왔다.⁴¹⁾ 그러나 현대 패션에서는 복식이 몸을 빌려 인간의 정신세계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정신세계가 패션을 창조하고 있다.

몸·복식이 전일적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는 후기구조주의 시각에서 본 몸·복식과 욕망의 관계는 <표 2>와 같다.

3. 몸·복식에서 욕망의 미적 가치

1) 나르시시즘

나르시시즘은 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에 반하여 자기와 같은 이름의 꽃인 나르키소스, 즉 수선화(水仙花)가 된 그리스 신화의 미소년 나르키소스와 연관지어, 독일의 정신과 의사 네케(Paul Näcke)가 1899년에 만든 말이다. 자기의 욕체를 이성적 욕체를 보듯 하는 것, 또는 스스로 애무함으로써 쾌감을 느끼는 것을 말한다. 정신분석학적 용어로는 자신이 리비도의 대상이 되는 것이며 자기애(self-love)라고 번역한다.⁴²⁾ 프로이트는 나르시시즘이 낳는 주관적 감각으로 자긍심(self-regard)을 지적하였고,⁴³⁾ 래쉬(Christopher Lasch)는 현대 사회의 특징으로 퇴행적 나르시시즘을 지적하였다. 퇴행적 나르시시즘이란 에고이즘이나 자기애와는 달리 현대의 여러 경향들이 개인의 자기관념

(self-concept)을 위협하는 도덕관념이나 집단에 대한 귀속을 기피하며 축소 지향적 피난처를 찾는 경향을 말한다.⁴⁴⁾ 로스틴(Arnold Rothstein)은 나르시시즘을 ‘완전함의 감각(a felt quality of perfection)’으로 정의하였다. 나르시시스트적인 완전함은 실재의 방어적 왜곡, 자기대상(self-object)의 행복한 공생 단계에서 연유하는 완전함에 기반을 둔 감정적 힘과 함께 하는 환상이다. 나르시시즘은 결국 취약한 자기관념이 방어를 위해 자신을 부풀리거나 누군가의 이상화를 통해 그와 함께하고자하는 시도로 흔히 나타난다.

코후트(Heinz Kohut)는 나와 남 사이의 영역에 주목하여 나르시시즘을 설명하는데, 자기대상에 따라서 거울전이(mirror-transference)와 이상화전이(idealizing-transference)의 두 가지 방향성을 지닌다고 하였다. 자아는 거울전을 통해 건강한 자기 주장이나 야심을, 이상화전을 통해 가치를 유지해주는 이상을 지닐 수 있게 된다.⁴⁵⁾ 쾰버그(Otto Kernberg) 또한 자궁심을 나르시시즘을 움직이는 감정적 힘으로 파악하였다. 나르시시즘은 최상의 가치를 자신의 것으로 여기거나 소유하고자 하는 욕망이다. 나르시시즘은 종종 바람직한 상태를 이미 구현한 존재를 대상으로 취함으로써 대상의 가치를 자신 안에 귀속시키려 한다. 완전한 이미지는 그것이 허구일지라도, 아니 오히려 허구라는 점에서 의미의 가치를 생산하기 때문에 자신을 지탱하는 수단으로 기능한다. 나르시시즘의 대상에 대한 기획은 완전한 자아의 관념, 혹은 이상의 관념이라는 허구를 받아들임으로써 삶에 의미 있는 방향성을 부여하는 것이다. 나르시시즘은 이상적 자기이미지에 대한 사랑이며 이를 되찾으려는 노력이다.⁴⁶⁾

프로이트는 주체의 나르시시즘 구조물으로써 내면세계의 환상대상과 함께 자아이상(ego-ideal)을 설정하고 있다. ‘자아이상’이란 자아의 이상을 투영한 하나의 외부대상을 말한다. 자아이상은 자신

에 대한 완벽함의 개념으로 주체의 이상과 가치관을 드러내준다. 완벽함이란 주체의 윤리적, 비판적 사고로써 사회화 과정을 통해 형성된 초자아와도 관련된다. 자아이상이 대상의 본질과는 상관없이 주체의 내부 안에서 확대되고 이상화되어 실재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 변경된 자아(alter-ego)라는 점에서 자아이상과의 동일시 역시 ‘상상적 전이관계’이다. 자아이상과의 동일시는 주체와 대상 간의 비(非)분화 상태로 경험되며 주체는 자신에 대한 충족감을 경험하게 된다. 주체의 사회화 이후에 형성되는 자아이상 역시 어린 시절의 잃어버린 나르시시즘의 대체물이다. 자아이상의 형성은 성인주체에 있어서 자아의 욕구를 높이고 억압을 조건지우는 초자아와 관계하면서 한편으로는 나르시시즘을 계속적으로 보장해주는 양가성(兩價性)을 갖는다.⁴⁷⁾ 나르시시즘은 자궁심의 회복을 통하여 삶에 지속성을 부여하는 한편 자아이상을 통하여 창조성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한다.

몸·복식이 전일적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는 현대 패션에서 개인의 자아이상은 자신의 몸을 매혹적인 것으로 인식하여 자신의 몸을 드러내거나 복식을 사용하여 몸을 은폐시키기도 하고, 때로는 타인이나 실존하지 않는 관념의 대상을 나르시시즘의 기획대상으로 삼고 몸·복식을 통해 자아이상을 실현하고자 한다. 몸·복식을 전일적 개념으로 인식할 때, 현대 패션은 자아이상을 실현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2) 페티시즘

페티시의 사전적 정의로는 첫째, 주물(呪物), 물신(物神)의 의미로 영혼이 살아있다고 믿는 이교도들의 숭배대상이며 둘째, 비정상적인 숭배나 지나친 관심의 대상, 또는 사로잡힘, 집착(obsession)의 의미가 있으며⁴⁸⁾ 셋째, 마술적인 혹은 영적인 힘을 가진 것에 대한 매혹적인 생각을 일컫기도 한다.⁴⁹⁾ 페티시는 종교적인 의미에서 출발하여 그

의미가 확대된 숭배의 대상이며, 동시에 그에 대한 태도이다. 인류학적 연구에서 페티시는 사물 자체가 아닌 사물 안에 있는 정신을 지칭하며 종교의 최초 발전단계를 설명한다. 원시종교에서 가시적인 대상에 대한 관심, 존경, 숭배를 페티시즘이라 하였다. 물질은 자연의 힘을 함유하고 있어서 인간의 병을 치료, 치유하며 그것을 소유함으로써 인간은 행복해질 수 있다고 믿었다. 또한 물건은 방어적 목적으로 악마의 저주로부터 보호할 수 있고 낭만적이고 에로틱한 사랑을 가져다줄 수 있다고 믿었다. 특히, 옷은 닿을 수 없는 몸을 대신하는 것으로 신성하게 여겨졌다. 페티시는 기원적 의미에서 마술적이고 영적인 힘과 관계되며, 비이성적인 숭배의 대상이 되는 사물, 사물에 대한 숭배의 태도를 모두 지칭한다.⁵⁰⁾

몰(Abraham Moles)은 소비사회에서 인간이 주변사물에 대해 갖는 태도로서 ‘수집가들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페티시즘적인 태도’를 언급하였다. 이것은 소유에의 집착을 의미한다. 몰(Moles)은 ‘무엇인가를 사는 것’으로 만족시켜야 하는 사물이나 소유에 대한 집착의 의미로 페티시즘을 설명하고 있다. 이것은 사물에 대한 숭배가 소비의 영역으로 확대된 것으로 소비문화가 발달함에 따라 욕망의 대상이 상품으로 전이된 것을 반영한다. 쿤즐(David Kunzle)은 페티시 대상의 소유에 대해서 욕망의 모순(paradox of desire)을 지적하였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얻을 수 없는 환상을 소유하고자 하는 페티시의 본질을 지적하는 것이다. 페티시 대상물은 신의 힘이나 사랑, 권력 등 환상의 일부분과 제유적인 의미를 가지며, 환상에 대한 욕구는 대상물에 대한 집착으로 현실화되어 페티시구조를 이루는 것이다.⁵¹⁾

(1) 성적 페티시즘

1880년대에는 페티시즘에 대해 보다 현대적이고 복합적인 논의로서 ‘성적 페티시즘(sexual fetishism)’

에 대한 개념이 나타났다. 프로이트가 밝힌 페티시즘의 기원에서는 억압과 부인, 타협의 구조가 존재한다. 소년이 여성에게 페니스가 없음을 지각하면서 감정의 ‘억압’과 표상의 ‘부인’이 일어난다. 여성이 가지는 결핍에 대해 부인(否認)과 승인(承認)이 동시에 행해지는 모순은 무의식의 ‘타협’을 통해서 결핍을 대리물로 대체한 여성에게 성적 대상이 될 수 있는 특징을 부여하는 역할을 한다.⁵²⁾ 페티시즘은 유물숭배와 여성의 유물화(唯物化)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자본주의적이고 가부장적인 성격을 갖는다.⁵³⁾ 페티시 대상물을 통해서 환상에 대한 욕구의 대체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의미구조를 가지며 페티시 대상물은 남근에 대한 환상의 대체물으로써 그 일부로 종속된다. 성적 페티시즘의 전제는 정상적인 성(性)목표를 추구하는 충동이 저하되어야 한다. 욕구의 방향이나 대상의 전위를 통해 정상적이거나 도착된 성목표가 포기되는 것이다. 완전한 페티시즘에 이르는 중간단계로서 성대상은 특정한 페티시즘적인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데 머리카락의 색, 의류 때로는 신체의 결합 등이 페티시즘의 조건으로 알려지고 있다.

(2) 물적 페티시즘

마르크스는 상품이 가지는 사용가치와 교환가치의 관계를 통해서 생산자, 즉 인간의 사회적 관계가 이루어짐을 설명하였고, 재화가 가지게 되는 힘을 상품 페티시즘의 개념으로 설명하였다. 마르크스의 상품 페티시즘은 상품이 가지는 사회적 힘이나 가치가 실제로는 인간에 의해 생산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물자체에 힘이나 가치가 본래적으로 존재하는 것처럼 믿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⁵⁴⁾ 보드리야르는 사물을 ‘물리적 실체’로 보지 않고 ‘기호’로 파악하여 체계를 가진 것으로 간주하였다. 기호로서의 사물은 사용가치보다는 교환가치를 지니는 것이며 기호로서의 상징가치와 물질적 가치를 지닌다.⁵⁵⁾ 보드리야르의 상품 페티시

즘은 ‘상품 자체가 힘을 가진 것으로 믿음’의 개념으로 발전하여 상품이 기호로 갖는 기의에 매혹되며, 실체의 추구가 아닌 기호의 체계에 주체가 사로잡히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⁵⁶⁾ 물질 페티시즘에서 인간의 욕구는 특정한 사물에 대한 욕구가 아닌 사회적 의미에 대한 욕망을 반영하는 차이에 대한 욕구로 해석된다.

하우크(W. F. Haug)는 1971년 「상품미학 비판」에서 지속적으로 소비를 유도하기 위한 자본의 기술을 미적 혁신(ästhetische innovation)으로 설명하였다.⁵⁷⁾ 상품미학에서는 사물이 가지는 물신성(物神性)을 보다 발전시켜 상품을 미화하는 가상으로서 미적 가상의 개념을 설명하였다. 미적 가상은 상품에서 분리되어 상품을 둘러싸는 총체적인 환경으로써 가상공간 구성의 차원까지 확장되며 감각의 가상적 만족을 통해서 동시에 또 다른 요구를 만들어 내는 강제적 집착상태를 유도한다.⁵⁸⁾ 미적 가상은 미적 추상화를 통해서 이루어지며 그 결과 상품의 표면적 이미지는 소비자가 얻고자 하는 상품의 사용가치를 대변해 줄 수 있게 된다. 즉, 상품자체가 힘을 가진 것으로 믿게 되는 물신의 단계에서 이제는 상품의 가상적 이미지가 상품의 가치에 더 큰 지배력을 가지게 된 것이다. 상품과 상품에서 비롯되는 가상적 이미지가 현대 사회의 물신으로 그 영역을 확대해가며 소비사회를 이루는 하나의 통합된 지배적 기호체계를 이루어간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사회경제학적 해석에서 상품이나 상품의 이미지는 기호로서 사회적 의미와 제유적인 관계를 가지며 물질 페티시즘의 기본구조를 이룬다.

소유를 통한 욕망의 충족을 본질로 하는 페티시즘은 몸·복식의 끝없는 변화와 소비를 지속시키는 힘으로 작용한다. 현대 패션에서 페티시즘은 크게 두 가지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다. 첫 번째는 패션을 조형적 대상으로 파악하고 시각적으로 파악되는 특정한 성적 이미지를 추구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패션이 가지는 기호로서의 상징가치에 대한 소유를 지향하는 것이다.

3) 에스테티시즘

에스테티시즘은 서양미술사에서 일반적으로 ‘예술만의 예술(l’ant pour l’art)’운동과 관련하여 논의되는 미적 근대성의 개념으로 예술이 사회 전반적 가치와 권위로부터 벗어나 자율성을 지향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에스테티시즘은 19세기말 자연주의 등에 대한 반발로 자연을 배격하고 인공적인 것을 중시하며 예술의 독자성을 추구한 경향으로 모든 것을 미적인 견지에서 평가하는 태도나 세계관으로 예술지상주의를 가리키는 말로도 쓰인다.⁵⁹⁾ 본 논문에서 에스테티시즘은 반대종적인 순결주의를 지향하는 운동이 아니라 라파엘전과가 이끌어 갔던 것처럼 대중문화의 성격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절충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미학적 가능성을 발굴하여 제시한 점과 시대적 흐름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면서 사회적 가치에 저항하는 동시에 예술가의 자유를 주창하고 순수한 미적 가능성을 도출해냈던 사조⁶⁰⁾로 파악하고자 한다.

몸·복식을 통해 창조의 욕망을 추구하는 에스테티시즘은 통시적 관점에서 시대적 이상미(ideal beauty)와 디자이너의 조형의지로 표현되는 절대적 이상미로 분류할 수 있다. 이상미(理想美, ideal beauty)는 이상(理想, idea)과 미(美, beauty)라는 두 단어의 합성어이다. 이상은 각자의 지식, 경험의 범위 안에서 최고라고 생각되는 상태, 즉 그것에 도달하면 우리를 만족시켜 주리라고 상상되는 것이다. 절대적인 지성이나 감정의 최고 형태로써 실현 가능한 상대적 이상과 도달 불가능한 절대적 이상으로 구별된다.⁶¹⁾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개개의 사물과 육체의 미는 우리에게 대단히 자연스럽게 느껴지지만, 플라톤은 이것을 미의 가장 저급한 형태로 보았다. 사물과 육체 등의 미는 주관과의 관계에서 성립하

는 감각적 가상으로 존재할 뿐이다. 플라톤에 있어서 참으로 순수한 최고의 미는 이미 감각적 세계를 초월해 있는 궁극적·객관적 실재이고 이데아 그 자체이다. 그것은 순전히 지적 직관에 의해서만 포착될 수 있다. 이에 반해 감각적·현상적 세계에 있는 것은 미의 이데아에 대한 불완전한 반영일 때 비로소 아름다운 것이지 그 자체로서는 아름다운 것일 수 없다.⁶²⁾ 이상미란 인간의 지식과 경험의 범위 안에서 최고 또는 가장 완전하다고 생각되는 아름다움으로 정의내릴 수 있으며 이것에 끊임없이 도달하려고 하는 인간의 미의식이 반영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1) 시대적 이상미

한 시대의 보편적이고 지배적인 미적 가치, 즉 시대적 이상미(理想美)는 시대정신을 구성하는 많은 요소들 중 하나이다. 시대정신의 사전적 의미를 종합해보면, 한 시대의 문화에서 공통되고 그 시대를 특징짓는 지배적인 정신적 경향이다. 헤겔은 시대정신을 개개의 인간정신을 초월하는 보편적인 정신세계가 역사 속에서 자기를 전개시켜나가는 각 과정에서 취하는 형태라고 정의하였다.⁶³⁾ 아스첸부르너(K. Aschenbrenner)는 형식이 예술작품의 미적 영향을 결정하는 유일한 요소는 아니지만 여러 요소 중 형식만이 적절하게 분석될 수 있다고 하였다.⁶⁴⁾ 시대적 이상미는 특정시대에서 완성된 미적 가치로 시대별로 ‘상이하게’ 표출되었다. 시대정신이 그 시대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하게 되면 새로운 정신의 등장이 요구되고 그것의 지배를 받는 새로운 시대가 도래(到來)한다. 새로운 시대가 추구하는 달라진 요구는 그 시대를 살고 있는 인간에게 전혀 다른 역할을 수행해야 했기 때문에 시대정신은 끊임없이 발전하고 변화를 거치게 되는 것이다.⁶⁵⁾ 새로운 시대정신은 그것이 가시적으로 표출되는 형식의 변화를 초래하며 형식의 변화는 그 시대가 추구하는 이상미가 표출되

는 방식을 변화시킨다. 형식에 나타난 시대적 특수성이 동시대 사람들에게 이상적인 미적 가치로 보편화될 때, 이 미적 가치가 시대적 이상미이다.

시대적 이상미는 주관적 보편성의 미라고 볼 수 있다. 여기서 의미하는 ‘주관적’이란 한 시대의 미를 파악하는 주체인 인간이 미적 대상의 내용과 형식에 표현된 아름다움을 어떻게 파악하고 판단하느냐에 따라 시대별로 상이한 양상으로 결정되는 속성을 의미한다. 통시적인 객관성의 미가 아니라 시대마다 추구했던 미의 개념이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시대적 이상미의 보편성은 그 시대 안에서 보편적이고 공통되는 미이자 동시에 그 시대를 대표하는 미이어야 한다는 개념에서 기인한다. 불특정다수가 아닌 특정소수에 의해 형성되고 전파되는 미적 가치로서의 이상미는 사회학적 관점에서 억압의 요인으로 작용한다. 과거 수백 년 동안 시대적 이상미의 법칙을 주도해왔던 세력은 정치적으로 권력을 장악한 계급 또는 정치를 지도하는 계급이었다. 그들의 이해관계에 부응해서 이상미는 형성되고 강요되어 왔다.⁶⁶⁾ 지배계급이 추구하는 미가 이상미로 간주되었고 그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매체를 통해 기록되어 남아있기 때문에 권력의 욕망을 표출한다고 할 수 있다.

(2) 절대적 이상미

절대적 이상미란 상대적 이상을 표현하는 시대적 이상미와 같이 절대적인 지성이나 감정의 최고 형태로 표현되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보편적 현실상황에서 실현이 불가능한 이상으로 디자이너의 창조의 욕망을 표현한다. 이상이라는 단어에는 실존하지 않음, 현실과의 대치라는 의미가 내재되어 있다. 완벽한 미에 도달했다는 것은 인간의 착각이며 완벽한 미가 성취되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인간은 그것에 만족하지 않고 또 다른 새로운 이상을 만들고 그것을 숭배하게 된다. 따라서 하나의 절대적 이상미에 대한 구현은 또 다른 절대적 이

<표 3> 인간 존재론적 욕망과 미적 가치

근원과 관점		→	욕망	→	미적 가치				
존재의 결핍성	생물학적		본능의 욕망		거울전이(자기애)		나르시시즘	삶의 지속성	이상의 추구 (환상)
	사회학적				이상화전이(대상에)				
					퇴행적				
	미학적		권력의 욕망		성적		페티시즘	체제의 지속성	
					물적				
		창조의 욕망		시대적	이상미	에스테티시즘	창조의 지속성		
절대적									

상미를 추구하게 만든다. 절대적 이상미는 창조의 욕망을 추구하는 의지를 강화시키지만 절대적으로 변하지 않는 항상성을 포함하지는 않는다. 현대 패션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절대적 이상미는 프로이트가 생의 본능으로 제시한 리비도의 에너지를 비현실적인 공상(空想)이나 다른 대상을 향해 발산시키는 승화(sublimation)의 단계로 이해될 수 있다.

시대적 이상미에 대한 추구는 개인이나 집단에게 소속감을 부여함으로써 패션의 변화를 안정적으로 이끌어 내었고 절대적 이상미에 대한 추구는 생산자(디자이너)나 소비자(착용자)에게 창의성 혹은 취향으로써 타인과의 차별적 표현 욕구를 제공함으로써 패션의 변화를 지속시키는 힘으로 작용한다.

에스테티시즘은 사회적 이상을 추구하고자 하는 창조의 욕망이 몸·복식을 통해 표현된 것이다. 권력자나 디자이너의 이상이 대중적 수용을 거쳐 패션화로 정착한다면 그것은 삶의 방향성으로써 사회를 변화시키는 강력한 힘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 본 인간 존재론적 욕망과 미적 가치를 정리하면 <표 3>과 같다.

III. 현대 패션에 표현된 욕망의 미적 가치

미의식은 미적 대상을 향수, 창조하는 작가의 편에서 볼 때, 예술의지를 체현하는데 작용하는 것이며 미적 대상을 관조하는 관조자의 입장에서 볼 때, 미적 대상에 대한 특정한 감정을 형성하고 기술, 해석, 평가를 행하는데 작용하는 것이다. 미적 대상은 작가의 미의식이 투영된 객체로서, 또 관조자가 자신의 미의식을 토대로 작가의 미의식이나 시대정신을 감정하고 평가하는 객체로서 존재하게 된다.⁶⁷⁾

현대 패션은 몸·복식을 통해 디자이너(생산자)의 미적 이상을 투영한다. 현대 패션에 표현된 미적 이상은 관조자(소비자)의 감정과 평가에 따라 착용자와 관찰자로 분화된다. 착용자는 자신의 취향에 따른 선택적 수용과 소비를 통해 구체적이며 개별적으로 현대 패션을 체현하다. 착용자로부터 분리된 관찰자의 감정과 평가는 개별적으로 체현되는 소비자의 패션을 보다 보편적인 패션화로 이끌거나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새로운 미적 이상의 필요성을 요구하게 된다.

현대 패션에 표현된 개별적 상황을 미적 대상으로 하는 미적 가치의 평가나 해석은 자의적인 한계를 전제한다. 개별적 주체로서 디자이너가 추

구하고자 하는 미적 이상(욕망)은 착용자의 의도에 따라서 다른 미적 가치를 추구하게 되지만 또한 관조자의 관점에 따라서 디자이너와 착용자의 의도와는 상이하게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적 대상으로써 현대 패션을 디자이너, 착용자와 관찰자의 입장에서 살펴봄으로써 생산과 소비, 재생산의 과정에서 변화하는 패션과 패션화를 지속시키는 욕망의 미적 가치를 통합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대표사례로 제시한 이미지는 나르시시즘의 경우 착용자, 페티시즘의 경우 관찰자, 에스테티시즘의 경우 디자이너의 시각을 중심으로 선정하였다.

1. 나르시시즘

<그림 1>에서 착용자(모델)는 섬세한 포즈와 시선처리는 우아함을 자아내고 관찰자로 하여금 드레스의 조형적 특징뿐만 아니라 모델의 내면심리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킨다. 거울을 통해 잘 갖추어진 자신의 모습을 확인하고 있는 모델은 현대 패션에서 몸·복식의 전일적인 개념을 바탕으로 자아를 인식하는 거울전이단계의 나르시시즘을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디자이너의 미적 이상을 표현하는 에스테티시즘(모델)은 관찰자에게 대상애적 나르시시즘이나 물적 페티시즘의 대상으로 작용할 수 있다. 광고의 목적은 새로운 미적 이상을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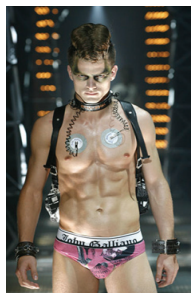
함으로써 소비자의 욕망을 자극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그림 2>에서 착용자(모델)는 당당한 포즈와 강한 눈빛으로 확신에 찬 자기애적 나르시시즘을 표현하여 관찰자에게는 이상화전이를 통한 대상애적 나르시시즘 유발시킨다. 또한 모델의 속옷이 비비드(vivid)한 색상과 그래픽으로 처리된 것은 자신을 꾸미기 시작한 남성의 변화가 본능적 욕구에서 비롯되었음을 암시하며 디자이너의 이름으로 처리된 밴드부분의 로고는 물적 페티시즘을 자극시키기도 한다. 하지만 건강한 육체와 화려한 속옷에 대한 열망을 자신의 미적 이상으로 표현하고 있는 디자이너는 모델의 목과 가슴에 부착된 전자장치를 통해 과학기술에 대한 믿음을 동시에 표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림 3>에서 착용자(모델)는 세련된 색상의 블라우스와 스커트를 통해 유아기적 로맨틱 스타일의 나르시시즘을 표현하고 있다. 모델의 표정과 포즈는 무관심 혹은 다소 비판적으로 보이기도 하여 모델의 리비도가 자아를 지향하고 있는 듯 보인다. 모델의 몸·복식을 통해 표현된 이미지와 모델이 손에 들고 있는 인형의 유사성은 자아이상이 어린 시절에 고착되어 있음을 암시한다. 디자이너는 어린 시절에 인형을 가지고 놀던 때의 유아기적 순수함과 낭만을 미적 이상으로 제시하고 있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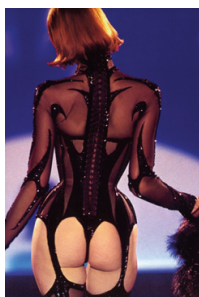
<그림 1> Isabell Kristensen
2001 S/S collection (출처: 「앙앙」,
2001년 9월호, p.136.)



<그림 2> John Galliano
2007 S/S collection
(출처: <http://www.samsungdesign.net>)



<그림 3> Jean Paul Gaultier
2006 F/W collection
(출처: <http://www.samsungdesign.net>)



<그림 4> 『fetish corset』
Thierry Mugler, (출처: 『fashion
fetish fantasy』, 1998, p.183.)



<그림 5> Viktor & Rolf,
2010, S/S collection
(출처: <http://www.samsungdesign.net>)



<그림 6> Ralph Lauren 광고,
(출처: 『20세기 패션아이콘』,
2009, p.301.)

며 모델은 변화에 무감각하거나 혹은 의도적으로 변화를 거부하는 자기애의 나르시시즘, 혹은 과거에 고착된 내면적 자아를 회복하고자하는 의지로서 퇴행적 나르시시즘을 표현하고 있다. 관찰자는 미적 대상으로 작용하는 착용자에 대한 태도에 따라서 수용과 거부의 행동을 보이게 될 것이다.

2. 페티시즘

티에리 뮈글러(Thierry Mugler)가 “페티시 코르셋”으로 명명한 작품 <그림 4>에서 모델의 노출된 엉덩이와 허벅지는 검정색 의상과 대조를 이루며 시선을 집중시키고 비치는 소재는 노출과 은폐의 이중성으로 성적 환상을 강화시킨다. 타이트 레이싱으로 처리된 등 부분은 인체를 컨트롤하는 중심축으로써 척추를 연상시키며 복식의 착용과 관련된 신체의 자기훈련 및 의존성을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가죽과 PVC로 제작된 팬티와 가터벨트는 페티시즘을 불러일으키는 대표적인 복식 아이템이다. 모델이 손에 들고 있는 모피는 체모를 연상시켜 성적 환상을 강화시킨다.

착용자는 코르셋을 통해 보다 이상적인 몸으로 변형된 자신의 모습을 통해 나르시시즘을 느낄 수도 있지만 코르셋의 착용과 탈의과정에서 발생하는 의존성은 코르셋을 조이게 되는 조력자의 지배, 즉 권력의 욕망을 내포하기도 하여 관찰자의 소유

욕(권력의 욕망)을 자극할 수도 있다. 티에리 뮈글러는 성적 페티시를 불러일으키는 대표적 아이템인 코르셋을 통하여 디자이너의 미적 이상이 착용자와 관찰자 사이에서 유발시키는 다양한 심리적 현상을 잘 보여주고 있다.

빅토 앤 롤프(Viktor & Rolf)는 2010년 S/S 컬렉션에서 영국 엘리자베스 1세의 복식을 연상시키며 절대적 부와 권위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의상을 발표했다<그림 5>. 디자이너는 현대 사회에서 향상된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역사적 맥락과 결부시켜 여성에 대한 자신의 미적 이상을 거대한 실루엣의 드레스로 표현하고 있다. 착용자는 자기존재의 확신에 찬 모습이며 모든 것을 소유한 완전체로서의 나르시시즘을 표출시킨다. 디자이너의 미적 이상으로서 창조의 욕망을 표현하고 있는 모델은 패션의 가상적 이미지를 통해 여성의 사회적 지위를 절대적 권위로 승격시킴으로써 물적 페티시즘을 유발시키고 있다.

<그림 6>에서 모델은 젊고 건강한 육체에 대한 환상이 페티시 대상으로 물화된 남성미를 표현하고 있다. T-셔츠 전면에 내세운 브랜드의 로고는 디자이너의 명성을 통해 상품의 사용가치에 가상적 환상을 덧입혀 교환가치를 기호화한다. 현대 패션에서 건강한 신체를 표현하는 아슬레티즘(athletism)과 교환가치를 상승시키는 브랜드 정책



<그림 7> Martin Margiela
(출처: 『Fashion』, 2005, p.666.)



<그림 8> Hussein Chalayan
(출처: 『20세기 패션아이콘』, 2009, p.326.)



<그림 9> Kisung Jeong
(출처: 『Body Mutation』, 2010, p.20.)

은 몸·복식을 통해 권력의 욕망을 표현하고 물적 페티시즘을 유발시키지만 동시에 20세기 말의 시대적 이상미로서 건강한 육체성의 회복(나르시시즘)을 강조하고 있다.

3. 에스테티시즘

<그림 7>에서 재킷의 암홀은 앞으로 옮겨져 있으며 봉제가 끝난 다음 다림질 되었다. 잘 못 만들어진 듯 이 보이는 이 재킷을 디자이너는 ‘몸에 맞는 재킷’이라고 이름 붙였다. 마틴 마르지엘라(Martin Margiela)는 ‘몸에 맞는 재킷’을 통하여 효율성과 합리성을 내세우며 발전해 온 테일러드 재킷의 인체공학적 허상을 지적함으로써 현대 패션의 새로운 에스테티시즘을 제안하고 있다. 디자이너의 미적 이상은 관찰자로 하여금 현대 패션을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보게 한다.

<그림 8>에서 후세인 살라얀(Hussein Chalayan)은 몸과 복식의 만남에 첨단소재와 과학기술을 덧입혀 자신의 미적 이상을 표현하고 있다. 100% 유리섬유로 제작된 ‘엔진이 달린 비행기 드레스’를 착용한 모델의 복식은 디자이너(전자장치)에 의해 작동되었다. 몸을 통해 존재하고 있는 복식이 과학기술에 의존하여 패션으로 체현되고 있는 것이다. 디자이너는 인간과 복식의 관계에서 과학기술이 미래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줄 요소로 제시하

고 있지만 과학기술에 대한 의존성은 인간존재의 주체성을 억압하는 굴레가 될 수 있음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다.

<그림 9>는 하체가 존재하지 않으며 허리를 중심으로 두 개의 상체가 연결된 기형적 인체를 가정하여 디자인되었다. 디자이너는 산업사회에서 소비를 지향하는 현대 패션이 발생시키는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 등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환기시키고자 하였고, 패션의 전제로 작용하는 인체의 해체와 재구성을 디자인발상의 기법으로 적용하였다. 디자이너는 소유의 양식(권력의 욕망)을 지지하고 있는 현대 패션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통해 존재의 양식을 지향하고자 하는 디자이너의 미적 이상을 창조적 시각으로 표현하고 있다.

IV. 결론

현대 패션에 표현된 욕망은 생물학적·사회학적·미학적 관점에서 본능·권력·창조의 욕망으로 분류되었고 각각의 욕망은 나르시시즘·페티시즘·에스테티시즘의 미적 가치를 추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첫째, 나르시시즘이란 리비도라 칭하는 에로스의 에너지가 자기의 육체, 자아, 자기의 정신적 특

정으로 집중되는 현상이다. 나르시시즘에는 거울 전이의 자기애, 이상화전이의 대상애, 원천성 회복을 강조한 퇴행적 나르시시즘이 있다. 자기애는 현재의 자아를 이상적으로 받아들임으로써, 대상애는 성장단계의 어느 시점에서 상정된 이상적 자아의 구현을 통해, 퇴행적 나르시시즘은 지속적인 변화에 대한 거부, 일환인 자아의 원천성 회복을 통해 구현된다. 나르시시즘은 이상을 추구하는 본능의 욕망으로서 자긍심을 유지·확고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볼 수 있다. 현대 패션에서 거울전이의 자기애는 하나의 스타일을 지속적으로 추구하게 되고, 이상화전이의 대상애와 자아의 정체성 회복을 추구하는 퇴행적 나르시시즘은 이상으로 상정된 나르시시즘의 기획대상에 대한 적극적인 추구로 나타난다. 나르시시즘은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함으로서 삶의 지속성과 항상성에 기여한다.

둘째, 페티시즘이란 가시적인 대상에 대한 비이성적인 관심, 존경, 숭배로부터 비롯된다. 몸·복식을 대상으로 파악되는 특정한 성적 이미지에 대한 추구, 개인이나 집단의 성적본능에 대한 표현을 지칭하는 성적 페티시즘과 소비사회에서 주변사물에 대해 갖는 수집가적 태도로서 물적 페티시즘이 있다. 성적 페티시즘은 성적 욕구를 페티시 대상으로(패션)로 전위시킴으로써 본능의 욕망을 극복할 수 있게 한다. 물적 페티시즘은 미적 혁신을 통해 소비자의 소유에 대한 욕구를 자극시키고 지속적인 소비를 유도할 수 있다. 페티시즘은 이상을 추구하는 권력의 욕망으로 복식 아이템의 분화와 스타일의 다양화·고급화에 기여하고 몸·복식의 변화에 지속성을 부여한다.

셋째, 에스테티시즘이란 대중문화의 성격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절충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미학적 가능성을 발굴하거나 기존의 사회적 가치에 저항하는 동시에 예술가의 자유를 주창하고 순수한 미적 가능성을 도출하고자 하는 것이다. 몸·복식을 통해 표현되는 디자이너의 미적 이상에는 시

공간의 특수성으로 표현되는 시대적 이상미와 보편적 현실상황에서의 실현보다는 디자이너의 창조의 욕망을 표현하는 절대적 이상미가 있다. 시대적 이상미에 대한 추구는 개인이나 집단에게 소속감을 부여하고 복식의 변화와 패션화를 주도한다. 절대적 이상미에 대한 추구는 디자이너나 착용자의 창의성 혹은 미적 취향의 다양성으로 표출되며 패션과 문화의 사회적 지향성에 대하여 창조적 시각을 제공한다.

현대 패션에 표현된 욕망의 미적 가치로서 나르시시즘·페티시즘·에스테티시즘은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인간의 고유한 욕구에 대하여 이상을 추구한다는 환상의 구조를 지니는 공통점이 있다. 현대 패션에서 디자이너의 창조의 욕망은 착용자의 본능의 욕망을 충족시키고 관찰자의 권력의 욕망을 자극할 수 있으며 대중에 의해 긍정적으로 수용될 때 패션화를 완성한다. 그러나 현대 패션에 표현된 욕망의 미적 가치로서 나르시시즘·페티시즘·에스테티시즘에 대한 해석과 평가는 몸·복식의 변형을 초래하는 행위의 내적 의도나 결과로써 표현된 미적 대상에 대한 개인적·사회적 태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현대 패션에서 몸·복식을 통해 표현되는 미적 가치에는 미적 대상을 통해 파악되는 조형미, 내적·정신적 가치와 미적 대상을 초월한 내적·정신적 가치의 파급효과가 있다. 20세기 패션이 산업으로 정착한 이후 현대 패션은 다양한 스타일의 분화와 제품의 고급화를 추구하며 소비사회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왔다. 그러나 가속화되어 가는 현대 패션의 변화는 자원의 고갈이나 환경오염 등 인간의 존재성을 위협하는 많은 사회적 문제들을 발생시키고 있다. 이것은 현대 패션을 통해 추구하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이 존재의 양식이 아닌 소유의 양식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20세기 말부터 추진되고 있는 웰빙(well-being), 혹은 힐링(healing) 등의 사회적 이슈들과 소유가 아닌 향유

를 지향함으로써 추구되는 ‘무소유’에 대한 관심들이 현대 패션을 통해 구현되기 위해서는 시대적 요구로서의 미적 이상에 대한 철학적 고찰과 패션을 삶의 존재양식으로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방향성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참고문헌

- 1) 임은혁 (2006). 복식에 표현된 몸의 재현성(2) -몸의 사실성 변질을 중심으로-, 복식, 56(9), p.67.
- 2) 임은혁, 김민자 (2006). 복식에 표현된 몸의 재현성(1), 복식, 56(7), p.128.
- 3) 이민선, 김민자 (2001). 남성의 몸과 패션에 표현된 미적 이미지(I), 복식, 51(1), pp.163-174.
- 4) 최나리, 우주형 (2006). 현대패션의 신체부위에 따른 에로티시즘 표현, 복식, 56(9), pp.24-36.
- 5) 최유진 (2009). 패션 디자인에 나타난 파편화된 신체 이미지 연구, 복식, 59(9), pp.43-54.
- 6) 두산동아 편 (2003). 동아 새국어사전 (제 5판), 서울: 두산동아, p.1752.
- 7) Homby, A. S. (1974). 혼비영영한사전, 김종만 옮김 (1981). 서울: 범문사, p.415.
- 8) 소병일 (2009). 생리학적 욕망과 기하학적 이성 간의 갈등, 범한철학, 55, pp.475.
- 9) 김원철 (2009). 욕망은 인간의 본질 그 자체이다, 범한철학, 55, pp.170-171.
- 10) 남기호 (2009). 헤겔의 욕망 개념, 헤겔연구, 26, p.34.
- 11) 임채광 (2004). 게오텔렌의 의식 개념과 문화 인간학적 쟁점들, 동서철학연구, 34, p.73.
- 12) 이면호 (1987). 인간의 공격적 본능에 관한 연구, 호남대학교 학술논문집, 8(1), p.163.
- 13) Laplanche, J., Pontalis, J. B. (1967). 정신분석사전, 임진수 옮김 (2005). 파주: 열린 책들, p.167.
- 14) Freud, S. (1990). 무의식에 관하여, 윤희기 옮김 (1997). 서울: 열린 책들, pp.94-104.
- 15) 임진수 옮김. 앞의 책, p.467.
- 16) 위의 책, pp.283-284.
- 17) 김성희 (2006). 20세기 후기 미술에서 신체기호의 의미 분석과 해석, 홍익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80.
- 18) 신혜영 (2004). M. 메트로폴티의 지각이론과 회화론 고찰,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13.
- 19) 김민자 (2004). 복식미학 강의 2, 서울: 교문사, p.82.
- 20) 위의 책, p.86.
- 21) 두산동아 편. 앞의 책, p.308.
- 22) 민영택 (1968). 정치학 사전, 서울: 문영각, p.351.
- 23) 양운택 (2003). 미셀 푸코, 서울: 살림, pp.13-16.
- 24) 하상복 (2006). 부르디외 & 기든슨, 파주: 김영사, p.62.
- 25) 위의 책, p.264.
- 26) 이민선 (2006). 권력 구조가 복식의 성적 표현에 미치는 영향, 복식, 56(5), p.91.
- 27) 권택영 (1994). 자크 랑캉 욕망이론, 서울: 문예출판사, p.35.
- 28) 위의 책, p.13.
- 29) 김순자. 앞의 책, p.1053.
- 30) 피종호 (2004). 후기 구조주의의 ‘몸’과 재현의 위기, 독일문학, 92, pp.96-97.
- 31) Shilling, C. (1999). 몸의 사회학, 임인숙 옮김 (2006). 파주: 나남출판, pp.115-116.
- 32) 피종호. 앞의 책, p.98.
- 33) 최광진 (2004). 현대미술의 전략, 파주: 아트북스, p.220.
- 34) Bogue, R. (1989). 들뢰즈와 가타리, 이정우 옮김 (1995). 서울: 새길, p.145.
- 35) 김민자. 앞의 책, p.87.
- 36) 두산동아 편. 앞의 책, p.2259.
- 37) 김종만 옮김. 앞의 책, p.354.
- 38) 임인숙 옮김. 앞의 책, pp.186-215.
- 39) Baudrillard, J. (1970). 소비의 사회, 이상률 옮김 (1991). 서울: 문예출판사, p.190.
- 40) 임진수 옮김. 앞의 책, p.75.
- 41) 김민자. 앞의 책, p.93.
- 42) 우상민 (2006). Shakespeare's Sonnets와 나르시시즘,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18.
- 43) 위의 책, pp.22-23.
- 44) 위의 책, p.19.
- 45) 위의 책, p.29.
- 46) 위의 책, pp.30-36.
- 47) 서진영 (1998). 김춘수 시에 나타난 나르시시즘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43-45.
- 48) 김종만 옮김. 앞의 책, pp.569-570.
- 49) Britanica CD 2.02. (1995). encyclopedia, Inc.
- 50) 서기숙 (1999). 패션에서 페티시즘 (Fetishism)의 정신 분석학적·사회경제학적 관점에서의 연구·성적 이미지와 소비문화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5-7.
- 51) 위의 책, p.8.
- 52) Freud, S. (1940). 프로이트 성애론, 정성호 옮김 (1997). 서울: 문학세계사, p.233.
- 53) 이의정, 양희숙 (1998). 페티시즘, 서울: 경춘사, p.74.
- 54) Jhalley, S. (1987). 광고문화: 소비의 정치경제학, 윤선희 옮김 (1996). 서울: 한나래, p.56.
- 55) Baudrillard, J. (1972). 기호의 정치 경제학 비판, 이규현 옮김 (1992). 서울: 문학과 지성, p.143.
- 56) 위의 책, p.95.
- 57) 위의 책, p.69.
- 58) 김문환 외 (1998). 19세기 문화의 상품화와 물신화,

-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p.161.
- 59) 이재경, 박은경 (2004). 라이프 스타일과 트렌드, 서울: 예경, p.70.
- 60) 이주은 (1994). 대중 문화적 요소를 절충한 라파엘전파의 유티주의, 미술사학, 21(1), pp.87-107.
- 61) 신주영 (2008). 복식에 표현된 시대적 이상미, 복식, 58(3), pp.132-133.
- 62) 논장 편 (1988). 미학사전, 서울: 논장, pp.16-19.
- 63) 신주영. 앞의 책, p.133.
- 64) Tatarkiewicz, W. (1980), 미학의 기본 개념사, 손효주 옮김 (2006). 서울: 미술문화, p.276.
- 65) Fuchs, E. (1912). 풍속의 역사 IV: 부르조아의 시대, 이기웅 옮김 (1994). 서울: 도서출판 까치, pp.2-3.
- 66) Fuchs, E. (1910). 풍속의 역사 III: 색의 시대, 이기웅 옮김 (1987). 서울: 도서출판 까치, pp.9-11.
- 67) 김윤희 (1998). 현대 한국적 복식에 나타난 인체와 복식에 대한 미의식,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52.

The Aesthetic Values of Desire Embodied in Modern Fashion

Jeong, Ki Sung

Associate Professor, Dept. of Fashion Design, Keimyung University

Abstract

This research aims to study the aesthetic value related to desire embodied in modern fashion. For this purpose, a survey of literature and demonstrative analysis of fashion photographs were performed. The aesthetic values drawn from the exhibition of desire in modern fashion is categorized into narcissism, fetishism and aestheticism. First, narcissism comes from the energy of Eros, or libido, being concentrated on one's body, self and psychological traits. The concept includes self-love through mirroring, object love through idealization, and regressive narcissism through the recovery of originality. Narcissism sustains life, as it necessitates self-confidence and offers psychological stability. Second, fetishism is interpreted as a certain sexual image coming from the clothing. In a consumption-oriented society, an obsession with luxury or designer brands is defined as materialistic fetishism. Fetishism sustains fashion change, as it differentiates clothing items and sophisticates styles. Third, aestheticism is an expression through clothing of the idealization toward creative desires. The pursuit of beauty of the era unites individuals and members of society, stabilizing the "vogue." Meanwhile, the pursuit of absolute beauty is about creativity or the aesthetic taste of designers and consumers, which differentiates individuals. Aestheticism sustains creativity, as it brings sustainability to changes in fashion. The aesthetic values of narcissism, fetishism and aestheticism lies in the quest of ideals to satisfy desires for instinct, power and creativity, which appears to be a circular structure.

Key words: desire, narcissism, fetishism, aestheticism

